



## 되는것도 법, 안되는것도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은 이렇게 아래에 앉았는데 제가 법상 위에 올라앉은 것은, 내가 높고 여러분이 낮아서 이렇게 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의 모습을 쳐다보는 반면에 나도 여러분을 다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지 내가 높아서 이 법상에 올라앉은 게 아닙니다. 인간과 더불어 같이, 부처와 중생은 모두가 평등한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서 평등한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어휴, 법상에 높이 앉았네!'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내려앉아도 될 건데 이렇게 죄송하게 올라 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내려앉음과 올라앉음이 둘이 아니게 평등하며 일체가 다 터졌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계(戒)·정(定)·혜(慧)에 대해 말씀드리다면 계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의 전체를 말합니다. 오계(五戒)니 십계(十戒)니 이백오십계니 이백팔십계니 하는 문제들도 전부 이 계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질서를 지키고 또는 시간도 지키고, 그걸 문란치 않게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한두 가지 계율이 아닙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살아 나가면서 지켜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누(累)가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누가 되지 않을 일을 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와 남이 전부 동시에 이익한 문제가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 될 수가 있으니 그것도 또한 계율에 속합니다. 빼고 길 줄을 모르다면은 그거는 목적과도 같은 거니까, 그래서 계는 정에 들어 있다, 정심(定心)에 들어 있다 이겁니다. 계는 정심에 들어 있고 해도 정심에 들어 있어서 바로 계·혜·정입니다.

그 정심(定心)으로 인해서, 한자리로 인해서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그 정심에서 밝아져야만이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탈이라는 것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이름마저도 벗어나야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의 암흑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달과 같다고 했습니다. 달과 같이 밝음, 어둠을 비춰주는 달과 같이 밝음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거기에 속해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체 만중생을 따뜻하게 키워주고 비춰주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속해 있느냐? 우리 생활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씨로 따뜻한 지혜로써, 말도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부드럽게 하고 생각 생각이 부드러운 지혜로써 서로 융합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해와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면 남의

마음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면 어찌 남의 마음이 따뜻할 때를 바라겠습니까? 내 마음이 약하게 되면 그건 무간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선하고 착하고 밝고 깨끗하게, 정심으로써 지혜롭게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일체 중생을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모든 상대를 대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돌이 아닌 도리로 대한다면 마음은 체가 없는 게 불을 쬐 수 있다 이소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러니 저러니, "나는

주인공을 찾는데도 이렇게 안 됩니다." "주인공을 찾았더니 잘 되다가 또 안 됩니다." 이러 거든요. 여러분이 한 발짝 떼어놓는 거만 알았지 한 발짝 또 놓고 드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한 발짝을 들었으면 한 발짝을 놓고 한 발짝 들었으면 한 발짝 놓고,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드는 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놓는 것도 알아야, 들고 놓고 들고 놓고 하는 작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을 기를 수 있다 이소립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찾으니까 어느 만큼 되더니 안 되더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알아야지 전진하기만 하면 빠져 죽죠? 때에 따라서는 전진하기만 하면 구멍이에 빠질 텐데 그때는 물러서야 빠져 죽지 않죠? 그러니 드는 것도 법, 들지 않는 것도 법,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 아니라 한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도 법이라고 했느냐? 구멍이에 빠지겠으니까 빠질 일은 물러서야 한다 이소립니다. 그러니 물러서서 다시 굴러서 놓으면은 빠지지 않을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굴릴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사에서 도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몸만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천차만별로 아픔을 가지고 가는데 바로 그 아픔이라는 재료가 지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공부법에 들어선 걸 뜻합니다. 그냥 맨손으로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들어선 겁니다. 그 재료가 아니면은 이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살지.' 하는 마음이면 이 길을 들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요 말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모든 것은 공(空)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애길 하지만 프로펠러 돌아가는 데, 그 시공을 조율해서 돌아가는 거기에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딴습니까? 네? 먼지 앉을 새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이 났다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생겼다 합니다. 내가 이런 걸 당했다. 내가 가졌다. 내가 병했다. 모두가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공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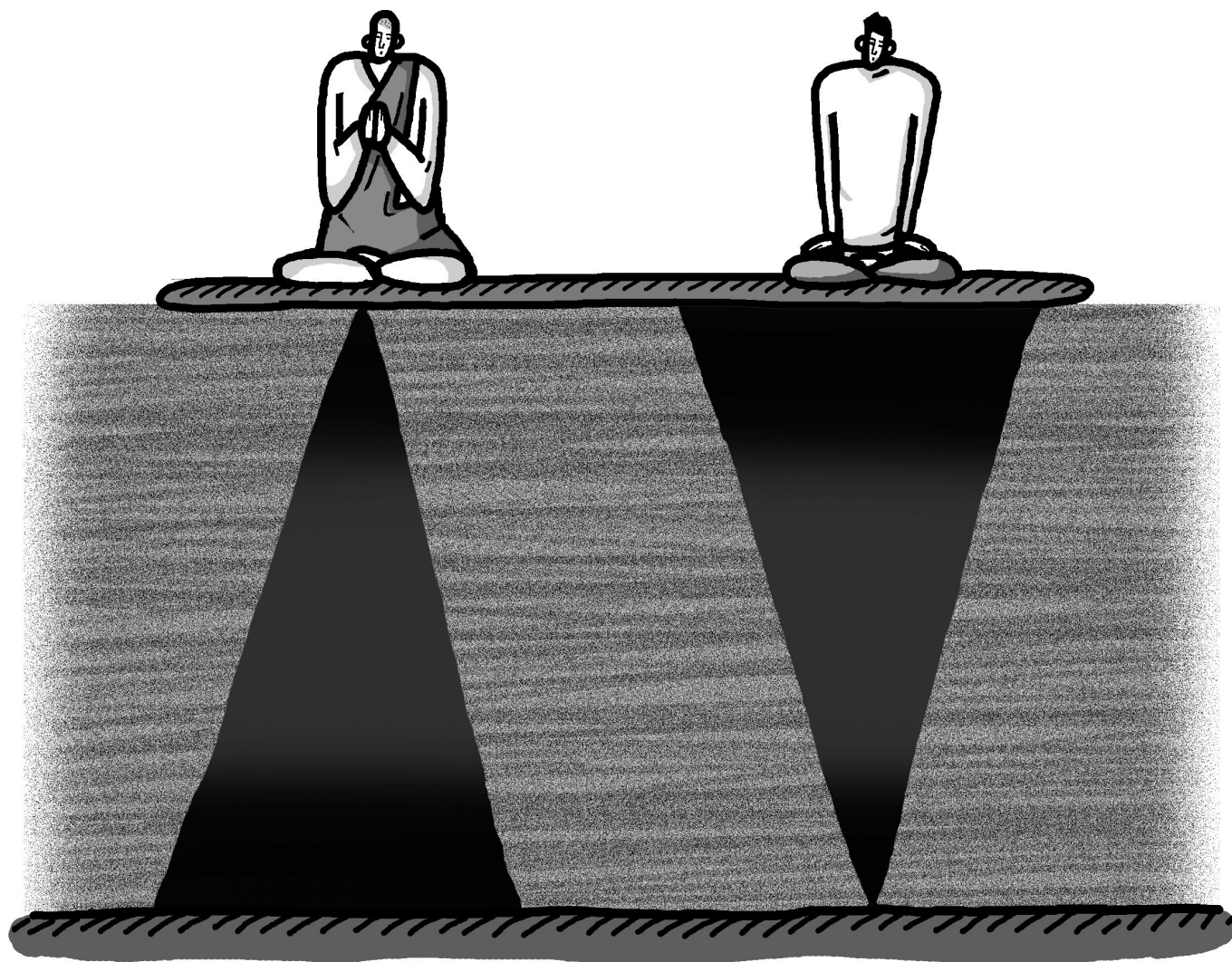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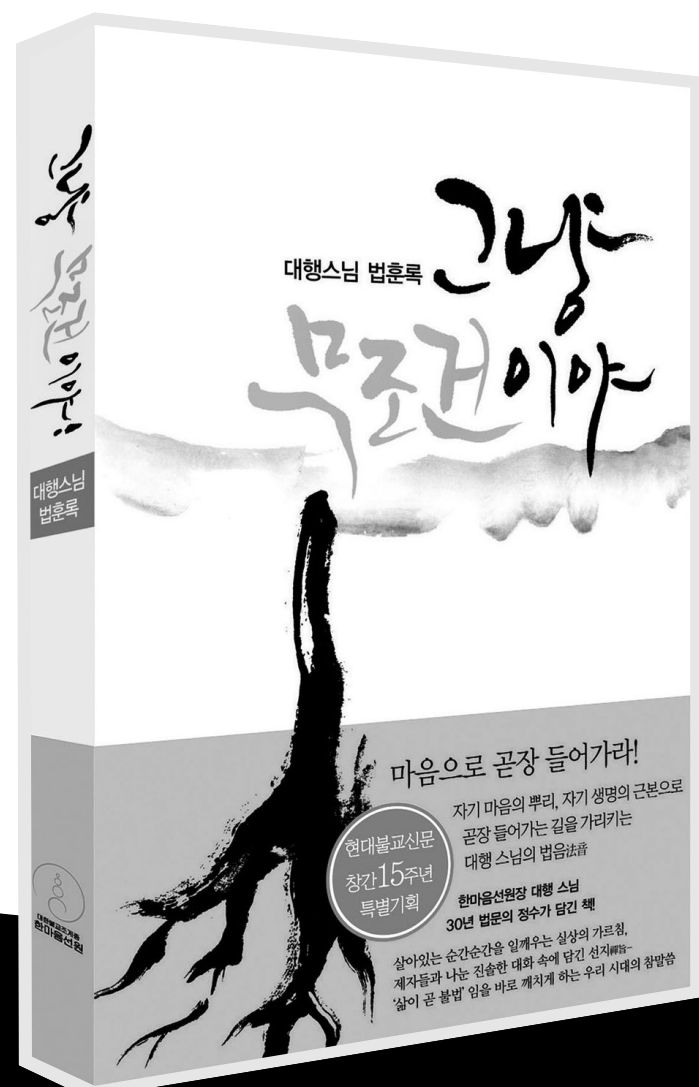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 主人翁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